

사회적 신념 및 남북 통일에 대한 태도, 통일정책 지지 간의 관계: 조절 및 매개모형 검증*

이 하 연¹ 최 훈 석^{1†} 권 영 미¹ 박 주 화²

¹성균관대학교

²통일연구원

한국인들의 통일정책 지지를 예측하는 변수로 사회적 신념(사회지배경향성, 우익권위주의)과 남북한 통일에 관한 태도를 측정하고, 변수 간의 관계와 통일정책 지지를 예측하는 조절 및 매개경로를 상세화하였다. 사회지배경향성과 우익권위주의는 각각 위계적 사회구조에 대한 지지와 사회변화에 대한 저항을 반영하는 신념이다. 따라서 두 신념은 남북 관계와 같이 지위 차이가 있는 집단 간의 통합을 통한 사회구조적 변화를 수반하는 통일에 대한 태도 및 행동과 상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더해 사회적 신념과 통일태도가 통일정책 지지를 예측하는 경로가 각각 독립적인지, 상호 조절하는지, 또는 매개하는지에 관한 가설을 추론하여 검증하였다. 인구비례할당 표집을 통해 수집한 한국 거주 성인 1,500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일에 대한 태도는 두 사회적 신념과 독립적으로 통일정책 지지를 예측했고 회귀계수의 크기를 기준으로 예측력도 가장 컸다. 그리고 이 관계는 사회적 신념에 의해서 조절되지 않았다. 또한, 통일태도가 사회지배경향성이 통일정책 지지를 예측하는 경로를 매개하였다. 이는 안정적 개인차인 사회적 신념이 구체성 수준이 높고 비교적 가변적인 통일태도를 통해 통일정책 지지를 간접적으로 예측함을 의미한다.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와 행동에 관한 학술 및 실용 연구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함의를 논의하였다.

주요어 : 사회적 신념, 사회지배경향성, 우익권위주의, 통일태도, 통일정책 지지

* 본 논문은 통일연구원 “통일에 대한 태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의 조사자료 중 일부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음.

† 교신저자: 최훈석,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E-mail: hchoi@skku.edu

남북한 통일은 현재 및 미래 한국사회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이다.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태도는 북한의 도발, 국내외 정치경제적 상황, 국제관계 등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서 영향받을 뿐만 아니라(김영기, 2018; 정은미, 2013), 개인의 연령,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 정치성향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김범수 등, 2021; 박주화 등, 2020). 통일에 관한 다양한 주장과 담론들은 한국사회를 통합의 방향으로 이끌기보다는 사회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며(강원택, 2004), 대북 및 통일정책 입안과 실행 과정에서 합의를 이루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KBS 남북교류협력단의 국민통일의식조사(2021)에 따르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응답 비율이 해마다 변화하며, 대북교류사업이나 의료지원과 같은 인도주의적 정책에 대해서도 '조건부 지지'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는 국민들의 대북 및 통일정책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한국에서 사회정치적 갈등을 줄이고 남북 통일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태도와 행동, 그리고 통일정책 지지와 관련된 주요 변수 간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남북한이 단일한 국가를 이루는 것을 통일로 규정했을 때(남북한 통일에 대한 일반인식과 정의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김학재 등, 2020; 최훈석 등, 2021), 통일은 남한과 북한이 통합된 사회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현재의 집단 간 지위 차이가 감소될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으로도 큰 변화를 수반하는 사건이다. 따라서 전반적 사회구조와 사회변화에 대한 구성원들의 신념(이하 사회적 신념)이 남북 통일에 대한 태도(이하 통일태도)와 상관되고, 이 변수들은 통일을 지향하는 정책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참여 행동(political participation; 이하 통일관련 정치 행동)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일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 및 통일에 관한 연구

에서 사회적 신념과 통일에 대한 태도, 그리고 통일관련 정치 행동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보고된 바 없다. 따라서, 통일관련 정치 행동의 예측변수로써 사회적 신념과 통일태도가 각각 독립적인 예측력을 지니는지, 변수 간에 조절관계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느 한 변수가 통일관련 정치 행동을 예측하는 경로가 다른 변수에 의해서 매개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전반적 사회구조 및 사회변화에 대한 개인의 신념(사회적 신념)과 통일태도, 그리고 통일관련 정치 행동(통일정책 지지) 간의 관계를 조명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위계적 사회구조에 대한 신념(사회지배경향성)과 사회변화에 대한 신념(우익권위주의), 남북 통일에 대한 태도, 통일정책 지지 간의 관계를 가설화하여, 통일정책 지지를 사회적 신념과 통일태도가 각각 예측하는지, 그리고 변수 간에 예측효과에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통일정책 지지를 예측함에 있어서 예측변수 간 조절 또는 매개관계를 검증하였다. 이 시도를 통해 한국에서 구성원들의 통일태도와 통일관련 정치 행동을 예측하는 심리과정을 상세화하고자 했다.

사회적 신념: 사회지배경향성과 우익권위주의

사회적 신념은 구성원들이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작동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지를 의미한다. 이는 개인의 사회화와 학습 과정에서 습득되어 비교적 안정적인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성격이나 정치적 이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참조: Duckitt, 2001; Jost et al., 2009).

사회적 신념에서는 사회지배경향성(Social Dominance Orientation, SDO)과 우익권위주의(Right-Wing Authoritarianism, RWA)가 대표적이다. 사회지배경향성은 집단 간 불평등, 즉 집단 간 위계적 관계에 대한 수용 및 선호 정도를 반영한다(Pratto et al., 1994; Sidanius & Pratto, 2001). 사회지배경

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집단들이 평등하지 않음을 수용하고, 우월한 집단이 열등한 집단보다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는다. 한편 우익권위주의는 관습주의(conventionalism), 권위주의적 공격성(authoritarian aggression)과 권위주의적 복종(authoritarian submission)의 속성을 반영한다(Altemeyer, 1981, 1988). 즉 우익권위주의 신념을 지닌 사람은 전통적 규범이나 가치를 고수하고, 전통과 규범을 위반하는 상대에 대해 공격적으로 반응하며, 권위와 체제를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특징을 보인다(Altemeyer, 1998). Altemeyer의 접근에서 발전한 최근 연구에서는 우익권위주의의 핵심을 사회변화에 대한 저항으로 규정하고, 전통의 선호(preference for tradition)와 점진적 변화 선호(preference for gradual change)를 우익권위주의의 신념을 구성하는 핵심차원으로 정의한다(White et al., 2020). 요약하면, 사회지배경향성은 사회의 구조와 관련하여 무엇이 옳다고 여기는지에 관한 신념(위계적 구조 선호 대 평등 구조 선호)을, 그리고 우익권위주의는 사회변화에 대한 신념(사회변화 선호 대 사회변화 비선호)을 각각 의미한다.

사회지배경향성과 우익권위주의는 구성원들의 정치적 태도 및 행동과 중요한 관련성을 지닌다(Jost & Sidanius, 2004). 두 요인은 보수적 정치성향으로 수렴하며(Jost et al., 2003) 정당 선호나 투표와 같은 정치 행동을 예측한다(예: Satherley et al., 2021; Womick et al., 2019). 그뿐만 아니라 두 신념은 외집단 편견과 차별을 정적으로 예측한다. 사회지배경향성과 우익권위주의는 각각 미국 학생과 남아프리카의 백인에게서 외집단(예: 아시아인, 히스패닉, 흑인 등) 편견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Duckitt et al., 2002). 또한 영국,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사회에서도 구성원의 사회지배경향성과 우익권위주의가 사회 내 저지위 및 낙인집단(예: 여성, 이슬람 신자, 노숙자 등)에 대한 편견을 정적으로 예측했고(Küpper & Zick, 2014), 호주 국민들의 소

외집단(예: 이민자, 장애인, 노인)에 대한 포용을 부적으로 예측했다(Zhao et al., 2020). 변수들을 6개월 간격으로 반복측정한 종단연구에서도 응답자들의 사회지배경향성과 우익권위주의는 각각 낙인집단(예: 범죄자, 무직자, 페미니스트 등)에 대한 편견에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Asbrock et al., 2010). 이는 사회지배경향성과 우익권위주의가 공동체 내/외부에서 내집단과 관계 맺고 있는 외집단에 대한 부적 태도와 행동을 예측하며, 집단 간 갈등을 악화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오랜 분단의 역사와 더불어 북한과의 갈등이 고착화된 한국에서도 사회지배경향성과 우익권위주의가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태도 및 행동과 상관될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분단 이후 경제력과 국제무대에서의 위상 등에서 차이가 심화되어 현재 남북한 간 분명한 지위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집단 간 이념 및 체제의 이질성을 감안하면 남북 통일과 같은 사건은 집단 간 지위 차이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한국사회에 매우 큰 변화를 일으키는 위협적인 사건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일부 국내 연구에서 사회지배경향성 또는 우익권위주의가 북한 및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가 관찰되었다. 예를 들어, 이상신(2015)의 연구에서 한국 성인들의 우익권위주의가 탈북자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정적으로 예측했다. 홍기원과 이종택(2010)의 연구에서는 북한에 대한 태도에서 사회지배경향성의 예측효과는 유의했지만 우익권위주의의 예측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Kwon과 Park(2019)의 연구에서는 남북한 관계에서 군사력 사용을 선호하는 정도를 사회지배경향성과 우익권위주의가 정적으로 예측했다. 그리고 윤광일(2019)의 연구에서는 사회지배경향성과 우익권위주의가 각각 긍정적 통일태도와 대북 유화정책 지지를 부적으로, 대북 강경정책 지지는 정적으로 예측했다.

요약하면, 국내외 유관 연구들로부터 사회적

배경향성과 우익권위주의는 통일에 대한 태도 및 통일 관련 정치 행동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지닐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지배 경향성과 우익권위주의가 북한이나 통일 관련 변수를 예측하는 효과는 선행연구들에서 일관되게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유관변수 간 단편적인 예측효과만을 검증했을 뿐, 전반적인 사회적 신념(사회지배경향성, 우익권위주의)과 통일이라는 구체적 사회변화 사건에 대한 태도, 그리고 통일 관련 정치 행동으로서 통일정책 지지 간의 관계를 상세화하여 검증한 연구는 보고된 바 없다.

남북 통일에 대한 태도와 통일정책 지지

태도는 대상에 대한 인지와 정서를 포함하는 다차원적 구성개념이다(Albarracín et al., 2005; Eagly & Chaiken, 1998).¹⁾ 남북 통일태도 역시 통일이라는 사건에 대한 개인의 평가를 반영하는 인지 차원과 통일과 연합된 개인의 정서 차원으로 구분 가능하다. 이처럼 태도의 핵심 성분을 구체화하여 측정하는 것은 해당 태도의 선행요인과 그 태도를 통해 예측하는 준거요인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조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효성이 큰 방식이다(Eagly & Chaiken, 1998). 이 관점에서 보면, 남북 통일에 관한 대다수 선행 연구들은 태도이론에 기반하여 국민들의 통일태도를 신뢰롭게 측정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국내 공공기관, 언론사, 대학연구소 등에서 실시하는 조사연구에서는 대부분 통일에 대한 찬성-반대 또는 통일의 필요성을 단일 문항으로 조사하여 통일태도를 단편적으로 다루었다(예: 김지범 외, 2019; 박주화 외, 2019). 일부 연구(예: 윤광일, 2019; 이화행 등, 2015)는 통일에 관

한 신념을 묻는 복수 문항(예: “전쟁의 위험만 없다면 굳이 통일할 필요는 없다”, “통일은 나와 가족에게 이익이 된다”)으로 통일태도를 측정했지만, 척도 구성에 관한 이론적 근거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인된 바 없다(최훈석 등, 2021).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최훈석 등(2021)은 남북 통일에 대한 태도의 구조를 인지와 정서 차원으로 구분하고 이를 측정하는 척도(Attitudes Toward Unification of Korea, ATU-K)를 개발하였다. 이들은 대표 표집을 이용한 사전 조사에서 남북 통일이 초래할 결과에 관한 신념으로 국력 강화, 사회/문화적 정체성 보존, 평화증진의 세 단면을 확인하고, 태도의 기대×가치 이론(Ajzen, 1991; Fishbein & Ajzen, 1975)에 근거하여 각 단면에 대한 기대 및 가치 평가를 통해 통일태도의 인지 차원을 측정한다. 또한 태도의 정서 성분을 인지 요인과 함께 하나의 모형에 포함시켜 태도를 연구하는 접근법(Abelson et al., 1982; Breckler & Wiggins, 1989)과 집단 간 관계에서 정서적 태도의 중요성(Bar-Tal, 2007; Stammel et al., 2017)을 강조하는 관점에 근거하여, 응답자들에게 통일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정적/부적 정서를 측정한다. 해당 연구에서 ATU-K 척도의 구성타당도, 수렴/변별타당도와 공준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ATU-K 척도의 요인 구조가 이론적 가정에 부합하고, 이 척도로 측정된 통일태도가 기존 방식(예: 찬-반 단일 문항 또는 통일의 편익에 관한 신념)으로 측정된 태도와 개념적으로 수렴하며, 통일태도와 유관한 다른 심리변수(예: 정치적 가치, 한민족정체성 등)와는 변별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ATU-K로 측정된 통일태도는 개인의 통일지향 행동(예: 통일에 관한 정보탐색, 통일을 논의하는 모임 참여)을 정적으로 예측했고, 특히 ATU-K 통일태도가 기존 간편 척도로 측정된 태도보다 준거변수에 대한 예측력이 컸다.

그러나 최훈석 등(2021)의 연구에서 준거변수로 사용된 개인의 행동의도는 일종의 시민참여

1) 태도의 하위차원으로 행동경향성을 포함하는 관점(Rosenberg & Hovland, 1960)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행동을 태도의 결과로 간주하는 인과모형(Fishbein & Ajzen, 1975)에 따라 태도의 하위차원을 인지와 정서로 구분한다.

(civic engagement) 행동에 해당한다. 주로 지역사회의 복지나 현안 해결에 관심을 두고 개인이나 단체가 개입하는 것을 의미하는 시민참여는 정치참여(political participation)와는 구분되는 행동으로, 정치참여는 정치적 사안이나 그 결과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동을 의미한다(시민참여와 정치참여의 정의 및 구분에 관한 자세한 개관은 다음을 참조: Ekman & Amnå, 2012). 개인 수준에서 가능한 정치참여로는 투표, 정당활동 참가, 정치운동(campaign)에의 참여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남북한 통일에 관련하여 대다수 국민이 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치참여 행동으로 통일 관련 정책에 대한 지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통일정책 지지 또는 반대를 통해 표명된 국민 의견이 정부의 실제 정책 입안과 실행, 그리고 통일의 전개 및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통일정책에 대한 지지는 통일관련 정치참여 행동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다수의 선행연구나 여론조사에서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통일관련 핵심 행동변수로 측정할 점과도 일관된다(예: 김지범 외, 2019; 김학재 외, 2020; 김혜숙, 2002; Jung et al., 2016).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통일에 관한 국민들의 정치참여 행동으로 통일정책 지지를 측정하고 이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통일태도와 사회지배경향성, 우익권위주의 신념을 설정하여, 두 사회적 신념과 통일태도 간의 관계 및 이 변수들이 통일정책 지지를 예측하는 경로를 추론하였다.

사회적 신념과 남북 통일태도, 통일정책 지지 간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개인의 사회지배경향성, 우익권위주의가 서로 상관되지만 독립적인 구성 개념일 것으로 예상했다. 두 사회적 신념은 개념적으로 구분되며(위계 구조에 대한 수용 대 변화 저항성) 서로 다른 세계관을 통해 예측된

다. 구체적으로 사회가 얼마나 경쟁적이라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세계관이 사회지배경향성을, 사회가 불안정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세계관이 우익권위주의를 예측한다(Duckitt et al., 2002). 또한, 두 변수는 외집단 편견과 같은 준거변수에도 각각 고유한 설명변량을 지닌다(Crawford & Pilanski, 2014; Duckitt, 2006). 동시에 두 변수에 선행하는 세계관 간 영향을 주고받을 것으로 가정되기 때문에(사회가 경쟁적이라고 생각할수록 불안정하고 위험한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큼; Duckitt, 2001) 두 변수가 정적으로 상관된다.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도 두 변수 간에 중간 크기 이하(상관계수 .50 이하; Cohen, 1988, 1992)의 정적 상관관계를 예상했다.

또한, 사회지배경향성과 우익권위주의가 각각 통일태도와 중간 크기 이하의 부적 상관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으로, 남북 통일은 집단 간 지위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현 상황 대비 광범위한 사회구조적 변화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사회지배경향성이나 우익권위주의가 강한 사람들은 통일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지닐 가능성이 크다. 다른 한편으로, 전반적 사회구조 및 변화에 대한 신념(사회적 신념)과 사회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태도(통일태도)는 그 대상과 구체성 수준이 다르다. 즉, 사회적 신념은 대상('사회구조의 위계성' 및 '사회변화')의 추상성 수준이 높은 반면 통일태도는 특정 대상('남북 통일')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평가와 구체적 정서 경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사회적 신념과 통일태도는 부적으로 상관되지만 개념적으로 독립적일 것이다. 따라서 세 변수 간에 중간 크기 이하의 상관을 지닐 것으로 추론했다.

이를 토대로 통일지향 정책 지지에 대한 두 사회적 신념과 통일태도의 예측효과를 차별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 사회지배경향성과 우익권위주의가 각각 통일정책 지지를 부적으로 예측할 것과, 통일태도가 통일정책 지지를 정적으로 예측하리라는 점은 선행연구를 통해 추론 가능하다(윤광일, 2019; Kwon & Park, 2019). 나아가 행

등에 직접 상응하는 구체적 태도를 측정할수록 유관 행동에 대한 예측력이 크기 때문에(Ajzen & Fishbein, 2005), 통일정책 지지에 대한 통일태도의 예측효과가 사회적 신념의 예측효과보다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를 종합하여 가설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사회적 신념과 통일태도 간의 관계와 통일정책 지지에 대한 예측효과 비교

가설 1. 사회지배경향성, 우익권위주의는 상호 정적으로, 그리고 이 두 변수는 각각 통일태도와 부적으로 상관될 것이다. 그리고 세 변수 간에는 중간 크기 이하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사회지배경향성과 우익권위주의는 통일정책 지지를 부적으로 예측하고, 통일태도는 통일정책 지지를 정적으로 예측할 것이다.

가설 3. 통일정책 지지에 대한 사회지배경향성과 우익권위주의의 예측효과보다 통일태도의 예측효과가 클 것이다.

한편, 두 사회적 신념과 남북한 통일에 대한 태도가 본 연구의 가정과 일관되게 서로 독립적이라면 통일정책 지지에 대한 변수 간의 조절효과를 추론할 수 있다. 앞서 논했듯이 통일은 지위 차가 존재하는 집단 간 사회통합을 이루는 급격하고 광범위한 변화를 수반하는 사건이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사회지배경향성이나 우익권위주의 수준이 낮을 때에만, 즉 집단 간 평등한 관계를 중시하거나 사회변화에 개방적인 경우에 통일정책 지지를 유의하게 예측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사회에 대한 전반적 신념과 통일이라는 사건에 대한 태도가 일관될 때 구체적 태도가 행동을 강하게 예측함을 의미한다(유관된 태도 간 일관성이 행동을 촉진하는 논리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Fabrigar et al., 2005). 반면 사회지배경향성과 우익권위주의 신념이 강한 경우, 즉 집단 간 지위차를 유지하는

것을 중시하거나 사회변화에 부정적인 사람들에게서는 사회 전반에 대한 신념과 긍정적 통일태도가 비일관되기 때문에 통일태도가 통일정책 지지를 정적으로 예측하는 효과가 유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통일태도가 통일정책 지지를 예측하는 효과는 사회적 신념과는 관계 없이 유의미할 가능성도 추론할 수 있다. 사회적 신념은 사회구조 및 사회변화에 대한 인지적 평가(신념) 차원에 한정되는 반면, 본 연구에서 통일태도는 인지와 정서 차원으로 구성 및 측정되어 준거변수를 예측하는 고유한 설명변량을 지닐 수 있다(Clore & Schnall, 2005). 특히 남북한과 같이 고질적 갈등이 오랜 기간 유지되어온 집단 간 관계에서는 구성원들의 정서가 매우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Bar-Tal, 2007)을 고려하면, 통일이라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평가와 정서 경험으로 구성되는 통일태도는 대상에 대한 강한 태도(Krosnick & Petty, 2014)로서 사회적 신념과는 무관하게 통일정책 지지를 예측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일태도와 통일정책 지지의 관계에서 사회적 신념의 조절효과에 관해 두 가지 가능성(조절효과가 유의하거나 유의하지 않음) 중 하나를 채택하지 않고 검증하였다.

연구문제 2. 통일태도와 통일정책 지지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신념의 조절효과

통일태도가 통일정책 지지를 예측하는 효과를 사회지배경향성 또는 우익권위주의가 조절하는가?

또한, 사회적 신념(사회지배경향성, 우익권위주의)과 통일태도는 개념적으로 구분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념이 통일태도에 선행할 가능성도 있다. 사회지배경향성과 우익권위주의는 정치적 사안에 대한 개인의 평가와 집단 간 편견 및 차별을 예측하며, 두 변수의 인과적 영향을 보여주는 종단자료도 보고되었다(Asbrock et al.,

2010). 이로부터, 사회지배경향성과 우익권위주의는 집단 간 지위 차이가 소멸되고 사회에 큰 변화를 초래할 남북 통일이라는 사건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예측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즉 사회구조 및 변화에 관한 전반적 신념이 집단 간 관계에서 구체적 사건에 대한 태도(통일태도)를 예측하고, 통일에 대한 태도가 통일정책 지지를 예측하는 매개관계를 상징할 수 있다. 이러한 추론과 일관되게 사회지배경향성과 우익권위주의가 각각 대상 집단에 대한 인식이나 위협지각을 매개로 외집단 편견과 정치 행동(정당 또는 정책 지지)을 예측한다는 결과가 서구에서 보고된 바 있다(이에 대한 개관은 다음을 참조: Duckitt & Sibley, 2010).

반면 대상의 구체성 수준이 높은 통일태도가 추상 수준이 높은 사회적 신념을 통해 통일정책 지지를 예측하는 역방향의 매개효과는 추론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사회지배경향성과 우익권위주의는 사회 전반에 대한 신념임과 동시에 개인의 가치관과 동기적 지향점을 반영하는 안정적인 속성인 반면(Duckitt & Sibley, 2010), 통일태도는 구체적 대상에 대한 인지 및 정서적 태도로서 개인차나 상황요인과 같은 다양한 선행요인으로 예측되는 가변적 태도이기 때문이다(최훈석 등, 2021).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신념이 통일태도를 거쳐 통일정책 지지를 예측하는 매개모형(그림 1)을 검증했다. 또한 통일태도가

사회적 신념을 거쳐 통일정책 지지를 예측하는 반대 방향의 매개모형을 함께 검증하여 가설모형과 대안모형의 상대적 타당도를 비교하였다.

연구문제 3. 사회적 신념과 통일정책 지지의 관계에서 통일태도의 매개효과

가설 4. 사회지배경향성과 우익권위주의가 통일태도를 통해 통일정책 지지를 예측하는 간접효과가 유의할 것이다. 반면, 통일태도가 사회지배경향성과 우익권위주의를 통해 통일정책 지지를 예측하는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을 것이다.

방 법

조사 개요 및 참가자

본 연구는 기관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수행되었다(IRB no. 4050-212). 응답자는 대한민국 거주 성인(만 19세 이상 만 69세 이하) 1,500명으로, 조사전문업체를 통해 성별, 연령대, 거주 지역에 따른 인구비례할당표집을 이용하여 모집됐다. 설문조사는 2020년 8월 6일부터 12일간 진행되었으며 응답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조사에 참여했다(응답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1.05%). 응답자들의 인구통계분포는 표 1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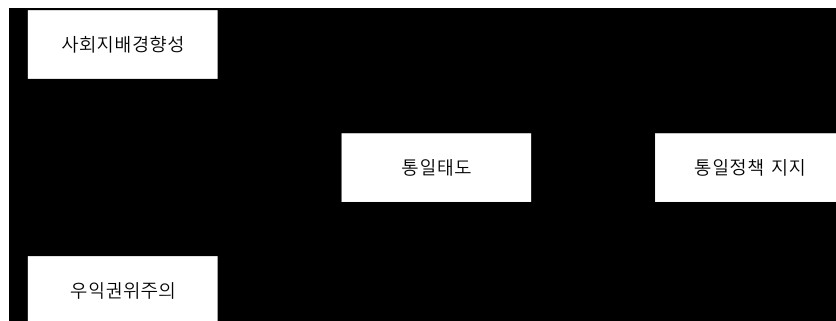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문제 3 가설모형(연구모형)

표 1. 인구통계변수에 따른 참가자 분포

	구분	남성	여성	계 (%)
연령	20대 (만 19세 ~ 29세)	120	140	260 (17.3)
	30대 (만 30세 ~ 39세)	122	132	254 (16.9)
	40대 (만 40세 ~ 49세)	165	166	331 (22.1)
	50대 (만 50세 ~ 59세)	180	188	368 (24.5)
	60대 (만 60세 ~ 69세)	143	144	287 (19.1)
학력	중졸 이하	5	7	12 (0.8)
	고등학교 졸업	133	171	304 (20.3)
	전문대 졸업	81	122	203 (13.5)
	대학 졸업	414	408	822 (54.8)
	대학원 졸업 이상	97	62	159 (10.6)
거주지역	서울	126	154	280 (18.7)
	경기/인천	220	243	463 (30.9)
	충청/대전/세종	85	86	171 (11.4)
	전라/광주	79	69	148 (9.9)
	경상/울산/부산/대구	187	180	367 (24.5)
	강원	22	24	46 (3.1)
	제주	11	14	25 (1.7)
가계 월소득 수준	250만원 미만	129	136	265 (17.7)
	250만원 ~ 499만원	299	301	600 (40.0)
	500만원 ~ 749만원	193	216	409 (27.3)
	750만원 ~ 999만원	76	80	156 (10.4)
	1,000만원 이상	33	37	70 (4.7)
	계(%)	730 (48.7)	770 (51.3)	1,500 (100)

절차 및 측정 도구

응답자들은 연구목적과 절차에 관해 안내받고 사전동의 후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조사에서 변수의 측정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통일태도, (2) 사회적 신념(사회지배경향성, 우익권위주의), (3) 통일정책 지지, (4) 인구통계변수(성별, 연령, 거주지역, 학력, 가계 월소득 수준).

사회지배경향성

집단 간 위계 관계에 관한 신념을 묻는 Ho 등(2015)의 척도에서 단축판으로 제안된 여덟 개 문항을 사용했다. 이 척도는 ‘지배성(dominance)’과 ‘평등주의(egalitarianism)’로 구분되는 두 차원의 신념을 묻는 문항(예: “이상적인 사회란 여러 집단 간에 상대적 우위가 정해져 있는 사회이다”, “모든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성공을 위한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으로 구성된다.

참가자들은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1점(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에서 5점(매우 동의한다) 사이에 응답했다. 측정 문항에 대한 2요인 고정 탐색적 요인분석(주성분분석, Direct Oblimin 회전 시행) 결과 원칙도와 일관되게 지배성과 평등주의 차원이 구분되었고(‘평등주의’ 요인설명량 35.65%, ‘지배성’ 요인설명량 22.22%), 두 차원 간 상관은 $r = -.24(p < .001)$ 이었다. 원칙도에서 평등주의 문항을 역점수화하여 전체 문항의 평균점수로 사회지배경향성 총점을 산출한 바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분석 시 여덟 개 문항 평균을 이용했다(Cronbach's $\alpha = .73$). 점수가 클수록 사회지배경향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우익권위주의

White 등(2020)의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했다. 이 척도는 ‘전통의 선호’와 ‘점진적 변화 선호’ 차원에 대한 신념을 묻는 열 개 문항(예: “과거부터 계속 사용되어온 전략들은 대부분 가장 효과적인 것들이다”, “빠르거나 급진적인 변화는 비합리적이며 위험하다”)으로 구성되었다. 참가자들은 각 문항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1점(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에서 5점(매우 동의한다) 사이에 응답했다. 측정 문항에 대한 2요인 고정 탐색적 요인분석(주성분분석, Direct Oblimin 회전 시행) 결과 전통의 선호와 점진적 변화 선호의 요인이 구분되었고(‘점진적 변화 선호’ 요인설명량 34.11%, ‘전통의 선호’ 요인설명량 16.46%),²⁾ 두 차원 간 상관은 $r = .49(p < .001)$ 이었다. 원칙도에서 전체 문항의 평균점수로 우익권위주의

2) 요인분석 결과에서 “전통을 고수하면 폐쇄적인 사회가 된다(역)” 문항은 두 요인 모두에서 요인부하량이 낮았고, “기존 방식으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라면 급격한 변화도 용인할 수 있다” 문항은 원칙도에서 ‘점진적 변화 선호’ 차원으로 규정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 ‘전통의 선호’ 차원으로 분류되었다. 하여 해당 문항들을 제외한 우익권위주의 8개 문항 평균을 사용하여 가설 검증을 시행한 결과 10개 문항 평균을 사용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본문에는 전체 10개 문항 총점을 사용한 분석 결과를 수록했다.

총점을 산출한 바에 따라 분석에서 전체 문항의 평균을 사용했다(Cronbach's $\alpha = .75$). 점수가 클수록 우익권위주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남북 통일에 대한 태도

최훈석 등(2021)이 개발한 남북 통일에 대한 태도(ATU-K)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했다. 통일태도의 인지 차원은 응답자들에게 통일이 야기할 결과(예: “한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한민족의 역사를 보존하는 데 기여한다”, “국제사회의 평화 증진에 도움이 된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기대(1점 = 매우 낮다, 2점 = 다소 낮다, 3점 = 중간, 4점 = 다소 높다, 5점 = 매우 높다)와 해당 결과의 바람직성(1점 =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2점 = 다소 바람직하지 않다, 3점 = 보통, 4점 = 다소 바람직하다, 5점 = 매우 바람직하다)을 각각 묻고, 발생가능성(기대)과 바람직성(가치)을 곱한 값(범위: 1점 ~ 25점)을 개별 문항 점수로 산출했다(9개 문항 Cronbach's $\alpha = .93$). 통일태도의 정서 차원은, 응답자들에게 정적 정서 다섯 개(예: “설레다”, “기쁘다”; Cronbach's $\alpha = .96$), 부적 정서 다섯 개(예: “거부감이 든다”, “불안하다”; Cronbach's $\alpha = .90$)에 대해 통일을 떠올렸을 때 각 정서가 느껴지는 정도를 1점(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부터 5점(매우 강하게 느껴진다) 사이에 응답하도록 했다. 질문지에서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를 묻는 순서는 무선회되었다.

총 19개(인지 9개, 정적 정서 5개, 부적 정서 5개)의 문항에 대한 3요인 고정 탐색적 요인분석(주성분분석, Direct Oblimin 회전 시행) 결과, 원칙도에서 가정했듯이 인지와 정적/부적 정서의 세 차원이 구분되었다(‘인지’ 요인설명량 56.37%, ‘부적 정서’ 요인설명량 9.98%, ‘정적 정서’ 요인설명량 6.88%). 세 차원 간 상관은 다음과 같았다, 인지와 정적 정서 $r = .71(p < .001)$, 인지와 부적 정서 $r = -.59(p < .001)$,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 $r = -.65(p < .001)$. 본 연구에는 다차원 태도 종합점수의 예측효과를 검증하고

자, 분석에서 전체 개별 문항의 표준화된 점수 (Fisher's z-score)를 평균하여 사용했다(부적 정서는 역점수화, 19개 문항 Cronbach's $\alpha = .96$). 총점이 클수록 통일에 긍정적 태도를 지닌 것을 의미한다.

통일정책 지지

통일 관련 정치참여 행동으로 응답자들이 우호적 통일정책을 얼마나 지지하는지 물었다. 구체적으로 '대북 지원', '남북한 사회/문화교류 증진', '남북한 경제협력 증진', '대북 군사정책 축소'의 네 개 영역에서 각 세 개씩 총 12개 정책 (예: "북한 내 민간인들을 위한 식량 및 식수 지원", "남북 공연예술단의 공동 및 교류 공연",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사업 추진", "한미군사 훈련 축소")에 대한 지지 정도를 1점(전혀 지지하지 않는다)에서 7점(매우 지지한다) 사이에 응답하도록 했다. 측정 문항에 대한 1요인 고정 탐색적 요인분석(주성분분석) 결과 전체 요인설명량이 60.64%였다. 분석에서는 전체 응답을 평균하여 사용했으며(Cronbach's $\alpha = .94$), 값이 클수록 우호적인 통일정책을 지지함을 의미한다.

결 과

측정된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수 간 상관은 표 2에 제시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지배경향성과 우익권위주의는 약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r = .21(p < .001)$, 이는 예상대로 두 차원이 상관됨과 동시에 독립적임을 의미한다. 사회지배경향성은 통일태도, 통일정책 지지와 모두 중간 크기의 부적 상관을 보였고, 각각 $r = -.35(p < .001)$, $r = -.36(p < .001)$, 우익권위주의는 통일정책 지지와 약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r = -.11(p < .001)$. 우익권위주의와 통일태도 간에는 부적 상관이 관찰되었으나 통계적 유의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전반적으로 이 결과는 가설 1과 일관되게 사회지배경향성과 우익권위주의, 통일태도가 독립적 구성개념임을 시사한다.

통일태도는 통일정책 지지와 비교적 강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 = .67(p < .001)$. 인구통계 변수 중에서는 연령이 통일정책 지지와 정적 상관을 보였고, $r = .21(p < .001)$, 학력은 통일정책 지지와 약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 = .06(p = .028)$. 성별과 가계 월소득 수준은 통일정책

표 2. 변수 간 상관 및 기술통계치

	1	2	3	4	5	6	7	8
1. 성별	-	-.04	-.10**	.01	-.01	-.04	-.20**	-.04
2. 연령		-	-.02	-.04	-.14**	.21**	.22**	.21**
3. 학력			-	.18**	-.02	-.08**	-.12**	.06*
4. 월소득수준				-	.09**	-.01	.03	.02
5. 사회지배경향성					-	.21**	-.35**	-.36**
6. 우익권위주의						-	-.05	-.11**
7. 통일태도							-	.67**
8. 통일정책지지								-
평균 (표준편차)		45.05 (13.24)			2.49 (0.53)	3.21 (0.48)	0.00 (0.75)	4.42 (1.28)

주. N = 1,500; * $p < .05$, ** $p < .01$.

지지와 유의미한 상관성이 없었다.

가설 검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연구문제인 통일정책 지지에 대한 사회적 신념(사회지배경향성, 우익권위주의)과 통일태도의 예측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통일태도와 통일정책 지지의 관계를 사회지배경향성이나 우익권위주의가 조절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예측변수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는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번째 연구문제인 통일정책 지지에 대한 예측변수(사회적 신념, 통일태도)의 매개모형은 경로분석을 통해 검증했다. 모든 회귀분석에서 인구통계특성(성별, 연령, 학력, 가계 월소득 수준)의 효과는 통제하였다.

통일정책 지지에 대한 사회적 신념과 통일태도의 예측효과

통일정책 지지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1단계: 인구통계변수, 2단계: 사회지배경향성, 우익권위주의, 3단계: 통일태도를 투입)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회귀모형의 전체 설명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R^2 = .48$, $F(7, 1492) = 196.29$, $p < .001$, 사회지배경향성과 우익권위주의는 통일정책 지지를 부적적으로 예측했

고, 사회지배경향성 $b = -0.27$, $SE = 0.05$, $t(1492) = -5.46$, $p < .001$, 우익권위주의 $b = -0.18$, $SE = 0.05$, $t(1492) = -3.52$, $p < .001$, 통일태도는 통일정책 지지를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b = 1.07$, $SE = 0.04$, $t(1492) = 29.99$, $p < .001$. 이는 가설 2와 일관된다. 또한 인구통계특성과 사회적 신념(사회지배경향성, 우익권위주의)의 효과가 통제된 후 통일정책 지지에 대한 통일태도의 증분설명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Delta R^2 = .31$, $F(1, 1492) = 899.62$, $p < .001$. 즉 통일태도는 인구통계특성과 사회적 신념을 통제하고도 통일정책 지지를 예측했다.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해, 통일정책 지지에 대한 사회지배경향성과 우익권위주의, 통일태도의 예측효과를 비교하고자 bootstrapping 기법으로 회귀계수의 신뢰구간을 산출하여 비교했다 (Cumming, 2009; Cumming & Finch, 2005). 1,000회 반복 추출 bootstrapping을 실시하여 각 회귀계수의 95% 신뢰구간을 산출한 결과, 통일정책 지지에 대한 통일태도의 회귀계수는 $b(95\% CI) = 1.07(1.00, 1.16)$, 사회지배경향성 회귀계수는 $b(95\% CI) = -0.27(-0.38, -0.15)$, 그리고 우익권위주의 회귀계수는 $b(95\% CI) = -0.18(-0.31, -0.06)$ 이었으며, 통일태도 회귀계수의 95% 신뢰구간이 사회지배경향성과 우익권위주의 회귀계수의 95% 신뢰구간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표 3. 통일정책 지지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변수	<i>b</i>	<i>SE_b</i>	β	<i>t</i>	ΔR^2	R^2
성별	0.19	0.05	.08	3.91**	.05**	0.48**
연령	0.01	0.00	.07	3.38**		
학력	-0.03	0.03	-.02	-0.98		
월소득수준	0.02	0.02	.02	0.89		
사회지배경향성	-0.27	0.05	-.11	-5.46**	.12**	
우익권위주의	-0.18	0.05	-.07	-3.52**		
통일태도	1.07	0.04	.63	29.99**	.31**	

주. * $p < .05$, ** $p < .01$. 표의 회귀계수는 최종 단계(모든 변수 투입) 회귀모형에서의 결과를 표시.

보였다.³⁾ 이는 통일정책 지지에 대한 통일태도의 예측력이 사회지배경향성이나 우익권위주의보다 큼을 의미하며, 가설 3이 지지되었다.

통일태도-통일정책 지지의 관계에서 사회적 신념의 조절효과

통일태도와 통일정책 지지 간의 관계를 사회지배경향성이 조절하는지 검증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회귀모형의 전체 설명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R^2 = .48$, $F(7, 1492) = 193.06$, $p < .001$, 사회지배경향성은 부적으로, 통일태도는 정적으로 통일정책 지지를 예측했다, 사회지배경향성 $b = -0.32$, $SE = 0.05$, $t(1492) = -6.42$, $p < .001$, 통일태도 $b = 0.98$, $SE = 0.15$, $t(1492) = 6.56$, $p < .001$. 그러나 사회지배경향성과 통일태도의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b = 0.04$, $SE = 0.06$, $t(1492) = 0.70$, $p = .487$. 즉 사회지배경향성과 통일태도가 각각 통일정책 지지를 예측했지만 통일태도가 통일정책 지지를 예측하는 정도는 사회지배경향성의 수준에 따라 조절되지 않았다.

통일태도와 통일정책 지지 간의 관계에 대한 우익권위주의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회귀모형의 전체 설명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R^2 = .47$, $F(7, 1492) = 188.29$, $p < .001$, 우익권위주의는 부적으로, 통일태도는 정적으로 통일정책 지지를 예측하였다, 우익권위주의 $b = -0.25$, $SE = 0.05$, $t(1492) = -4.77$, $p < .001$, 통일태도 $b =$

1.18, $SE = 0.20$, $t(1492) = 5.98$, $p < .001$. 그러나 우익권위주의와 통일태도의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b = -0.01$, $SE = 0.06$, $t(1492) = -0.20$, $p = .844$. 즉 우익권위주의와 통일태도가 각각 통일정책 지지를 예측하지만, 통일태도가 통일정책 지지를 예측하는 정도가 우익권위주의의 수준에 따라 조절되지 않았다.

종합하여 이 결과는 통일태도와 통일정책 지지 간의 관계가 사회적 신념에 의해서 조절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사회적 신념-통일정책 지지의 관계에서 통일태도의 매개효과

가설 4를 검증하기 위해 사회지배경향성과 우익권위주의가 통일태도를 거쳐 통일정책 지지를 예측하는 매개모형을 검증했다. 분석에는 IBM Amos version 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연구모형의 합치도는 다음과 같았다, $\chi^2(2) = 54.59$ ($p < .001$), CFI = .96, RMSEA(90% CI) = .13(.10, .16), SRMR = .05. CFI와 SRMR 지수는 좋은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였으나(CFI .95 이상, SRMR .08 이하; Bentler & Bonnett, 1980; Hu & Bentler, 1999), RMSEA는 좋지 않은 적합도를 보였다(좋은 적합도 RMSEA = .05 이하; Browne & Cudeck, 1992). 그러나 RMSEA는 모형 자유도가 낮으면 과대추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Kenny, 2020) 모형의 자유도가 2인 본 연구에서도 편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감안하여 본 모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각 경로계수에 관한 검증 결과를 해석하였다. 그 결과, 사회지배경향성이 통일태도를 부적으로 예측했고, $b = -0.51$, $SE = 0.04$, $z = -14.59$, $p < .001$, 우익권위주의는 통일태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았으며, $b = 0.04$, $SE = 0.04$, $z = 1.12$, $p = .264$, 통일태도는 통일정책 지지를 정적으로 예측했다, $b = 1.15$, $SE = 0.03$, $z = 34.98$, $p < .001$ (그림 2). 1,000회 반복 추출 bootstrapping을 실시하여 간접

3) 두 회귀계수의 95% 신뢰구간 간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각 회귀계수의 점 추정치와 95% 신뢰구간에서 하위점수(또는 상위점수)와의 차이값(differences between mean point and point of lower/upper level of coefficient)을 산출하고, 산출된 두 개 차이값의 평균에서 절반값(mean differences/2) 이상으로 두 회귀계수의 신뢰구간에서 차이가 있을 경우 $p < .05$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함.

표 4. 통일정책 지지에 대한 통일태도와 사회지배경향성의 조절효과 검증 결과

변수	<i>b</i>	<i>SE_b</i>	β	<i>t</i>	ΔR^2	<i>R</i> ²
성별	0.20	0.05	.08	4.04**	.05**	.48**
연령	0.01	0.00	.05	2.62**		
학력	-0.02	0.03	-.01	-0.67		
월소득수준	0.02	0.02	.02	0.957		
사회지배경향성	-0.32	0.05	-.13	-6.42**	.43**	
통일태도	0.98	0.15	.57	6.56**		
사회지배경향성×통일태도	0.04	0.06	.06	0.70	.00	

주. * $p < .05$, ** $p < .01$. 표의 회귀계수는 최종 단계(모든 변수 투입) 회귀모형에서의 결과를 표시.

표 5. 통일정책 지지에 대한 통일태도와 우익권위주의의 조절효과 검증 결과

변수	<i>b</i>	<i>SE_b</i>	β	<i>t</i>	ΔR^2	<i>R</i> ²
성별	0.21	0.05	.08	4.29**	.05**	.47**
연령	0.01	0.00	.08	3.94**		
학력	-0.03	0.03	-.02	-1.06		
월소득수준	0.01	0.02	.01	0.31		
우익권위주의	-0.25	0.05	-.09	-4.77**	.42**	
통일태도	1.18	0.20	.69	5.98**		
우익권위주의×통일태도	-0.01	0.06	-.02	-0.20	.00	

주. * $p < .05$, ** $p < .01$. 표의 회귀계수는 최종 단계(모든 변수 투입) 회귀모형에서의 결과를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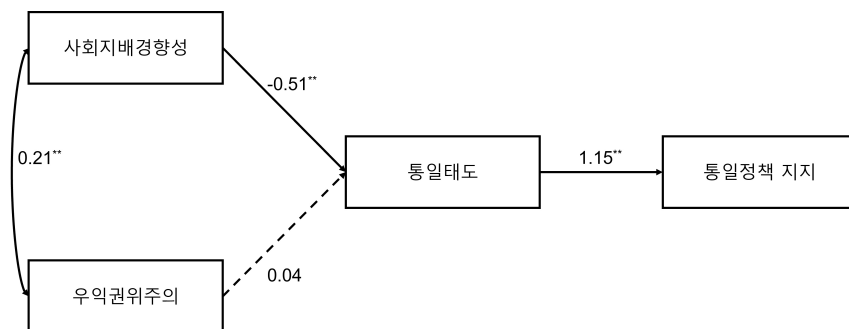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문제 3 매개모형 검증 결과

주. * $p < .05$, ** $p < .01$.

효과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산출한 결과, 통일 정책 지지에 대한 사회지배경향성의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지만, $b(95\% CI) = -0.58(-0.67, -0.50)$, 우익권위주의의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b(95\% CI) = -0.05(-0.04, 0.15)$. 종합하면, 사회지배경향성이 통일태도를 매개로 통일정책 지지를 부적 방향으로 간접적으로 예측했다. 반면, 우익권위주의가 통일태도를 예측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서 우익권위주의가 통일태도를 매개로 통일정책을 지지를 예측하는 간접효과 역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가설 4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

대안모형(통일태도가 사회지배경향성과 우익권위주의를 거쳐 통일정책 지지를 예측하는 매개모형)을 검증한 결과는 모형합치도가 좋지 않았다, $X^2(2) = 740.51(p < .001)$, CFI = .39, RMSEA(90% CI) = .70(.66, .75), SRMR = .17. 즉 통일태도가 통일정책 지지를 예측하는 효과를 사회지배경향성 또는 우익권위주의가 매개하는 모형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사회지배경향성, 우익권위주의, 남북한 통일에 대한 태도의 관계와 각 변수가 통일 관련 정치참여 행동으로서 통일정책 지지를 예측하는 경로를 검증했다. 연구 결과, 사회지배경향성과 우익권위주의, 통일태도는 상호 독립적인 구성개념으로 각각 개인의 통일정책 지지를 예측했다. 특히 통일정책 지지에 대한 통일태도의 예측효과는 사회지배경향성과 우익권위주의의 예측효과보다 컸으며 사회지배경향성과 우익권위주의의 효과를 통제된 후에도 유의했다. 그리고 사회지배경향성이나 우익권위주의 수준과 관계없이 통일태도가 통일정책 지지를 일관되게 예측했다. 이에 더해 사회지배경향성이 통일태도를 매개로 통일정책 지지를 예측하는 간접효과가 유의했다. 반면에, 우익권위

주의는 통일태도를 예측하지 않아서 통일정책 지지에 대한 통일태도의 매개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응답자들의 남북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태도가 통일 관련 정치참여 행동을 강하고 일관되게 예측하며 사회의 위계구조에 관한 전반적 신념으로서의 사회지배경향성은 통일태도를 거쳐 통일정책 지지를 간접적으로 예측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남북 통일과 관련된 학술 및 실용 연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과 후속 연구 가능성을 제언한다. 첫째, 우익권위주의에 관한 초기 연구들은 이 변수를 권위주의 또는 보수성을 반영하는 성격변수로 규정하였으나 (Altemeyer, 1981, 1988), 최근에는 이론의 정교화를 거쳐 우익권위주의를 전통 선호 및 변화에 대한 저항 신념으로 규정한다(White et al., 2020). 본 연구에서도 우익권위주의에 대한 최근의 개념 정의를 토대로, 남북 통일이 사회구조적 변화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우익권위주의가 통일태도와 부적 상관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와 일관된 결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국내 선행연구(예: 이진안 등, 2012; 홍기원, 이종택, 2010)에서 개인의 정치성향이나 통일 관련 변수들에 대한 우익권위주의의 예측효과가 일관되지 않음을 고려하면, 서구에서는 우익권위주의가 보수성향이나 정치적 행동을 예측하는 주요 변수일 수 있지만 한국, 특히 남북 관계라는 집단 간 맥락에서는 우익권위주의의 현상학적 특징이나 유관요인들과의 개념적 관련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으로, 한국에서는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으로 단일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신념과, 분단 이후 치열한 이념 및 체제 갈등으로 인해 북한과의 단절과 남한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신념 등이 공존한다. 이러한 층소된 사회정체성(남한-북한대 한민족) 구조에서는 우익권위주의가 북한 및 통일과 관련된 사회변화에 대한 신념을 적절히 포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통일 유관변수들에서 우익권위주의 신념의 예측

효과가 약한 것은 북한의 존재나 도발 가능성이 남한사람들에게 직접적 위협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남북한 갈등은 지속적인 무력충돌을 수반하는 갈등사례(예: 이스라엘-팔레스타인)와는 달리 휴전 상태에서 고착화되었고 일반인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반면에 우익권위주의는 현 사회체제나 전통적 규범에 위배되거나 이를 전복하는 사건 또는 그러한 사건에 결부된 외집단 성원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상관된 변수이다. 이러한 추론을 검증하기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북한에 대한 위협과 같은 변수를 직접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통일태도가 두 사회적 신념보다 통일정책 지지를 강하게 예측했으며, 통일태도-통일정책 지지의 관계에서 사회적 신념의 조절효과가 관찰되지 않은 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통일정책 지지에 대한 통일태도의 단독 설명변량은 31%에 달했고, 사회지배경향성과 우익권위주의의 예측효과를 통제하거나 조절효과를 포함했을 때도 통일태도의 독립적 예측효과가 유의했다. 이는 통일태도와 사회적 신념은 대상의 구체성 수준이 다르고, 통일태도의 경우 사회적 신념과는 달리 인지와 정서 차원을 모두 반영하여 개념화했기 때문에 사회적 신념 수준과 관계없이 통일정책 지지를 일관되게 예측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선행연구 및 여론조사에서 통일태도를 찬성-반대 단일 문항으로 묻는 것이 간편성의 측면에서는 이점이 있으나, 통일 관련 준거변수에 대한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론에 기반한 다차원적도의 구성과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많은 유관 연구에서 사회지배경향성과 우익권위주의를 핵심 예측변수로 상정하고 있지만, 통일 관련 연구에서 구체적 사건으로서의 통일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것이 더 유용함을 추론할 수 있다.

남북 관계나 통일 관련 연구에서 통일태도를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사회

지배경향성과 우익권위주의와 같은 사회적 신념의 역할을 저평가해도 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본 연구에서 사회지배경향성이 통일태도를 매개로 통일정책 지지를 예측했음을 고려하면, 사회적 신념과 태도 및 통일 관련 행동의 직접경로를 단순하게 확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사회적 신념과 집단 간 행동의 관계에 관한 이러한 추론은 남북 관계나 통일 관련 연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사회 내 저지위 낙인 집단에 대한 평등지향적 행동을 예측하는 연구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위계적 사회 구조에 대한 수용 신념을 반영하는 사회지배경향성이 저지위 낙인집단에 대한 평등지향 행동을 직접 예측하기보다는 해당 집단에 대한 구체적 태도의 매개효과를 조명하는 작업이 유용할 수 있다.

셋째, 통일 관련 실제 행동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태도 이외에 다른 주요 변수들의 예측효과를 연구모형에 통합하는 작업도 통일관련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계획된 행동 이론(Ajzen, 1991)에 따르면 행동을 직접 예측하거나 태도-행동 관계를 조절하는 주요 변수로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과 지각된 행동 통제력(perceived behavioral control)이 있다. 한국사회에서 남북 통일과 같이 찬반 의견이 양분된 논쟁적 대상에 관해서는 개인의 태도뿐만 아니라 통일과 관련된 사회적 규범 인식(주관적 규범)이 행동을 직접 예측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본 연구에서처럼 개인의 정치적 행동을 준거변수로 상정하는 경우, 지각된 행동 통제력(행동 실행에 관한 개인의 통제감 및 효과성 인식; Ajzen & Fishbein, 2005, p. 193)이나 정치적 효능감(political efficacy; Merolla et al., 2013), 사건 경험의 주체인 남한 사회의 집합적 효능감(collective efficacy; van Zomeren et al., 2018) 등이 구성원들의 실제 행동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통일정책 지지를 예측하는 사회적 신념으로 사회지배경향과 우익권위

주의뿐만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대한 정당화 및 합리화를 반영하는 체제정당화(system justification; Jost et al., 2004) 신념의 역할을 함께 평가하는 것도 흥미로운 시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남북 통일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체제정당화 신념이 고유한 예측력을 지니는지, 그리고 통일태도나 다른 사회적 신념 변수와 조절 또는 매개관계를 보이는지 등을 추가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적 신념 외에도 개인의 가치관(김혜숙, 2002)이나 사회정체성(최훈석 등, 2019) 등을 모형에 포함시켜 이 변수들이 통일태도와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 그리고 각 변수가 통일관련 행동을 예측하는 구체적 경로 등을 검증하는 후속 연구도 남북 관계 및 통일관련 학술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실용적 함의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통일지향 담론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비교적 안정적이고 단일 차원의 고정적 속성을 지니는 개인의 사회적 신념보다는, 환경이나 상황의 변화, 새로운 정보습득 등을 통해 가변적이고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통일태도에 초점을 두는 것이 유효성이 큰 전략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일태도 척도와 같이 통일태도를 인지와 정서 차원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유관 행동에 대한 예측력을 높일 수 있고, 통일태도의 하위차원과 준거변수 간의 관계를 상세화하여 통일 교육, 정책 입안 및 실행 등에 활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우호적 통일정책에 한정하지 않고 적대적(예: 대북제재, 군사력 확충 등) 정책을 조사에 포함시켜 통일태도의 각 하위차원의 예측효과를 비교하는 것도 유용한 시도일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본 연구는 횡단자료를 사용하여 변수들의 예측효과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상관연구의 한계를 지닌다. Harman의 단일-요인 검증 결과, 본 연구에 사용된 전체 문항은 10개 다요인으로 구성되며 단일요인의 설명변량이 32.31%로 절반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횡단자료 분석에서 통상

발생하는 공통방법편향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Podsakoff et al., 2003).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관찰한 경로들에서 변수 간 인과관계 추론을 위해서는 종단자료의 수집이 필수적이다. 또한 정책 지지 외에도 보다 적극적인 정치참여(예: 투표, 정치운동 참여)나 시민 참여 행동, 외집단과의 교류 및 화해의도(예: 최훈석 등, 2019) 등을 준거요인으로 포함하여, 통합모형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저자소개

이하연은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BK21 박사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관심사로는 창의성을 비롯한 집단 수행과,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 사회통합 등이다.

최훈석은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집단 과정 및 집단 간 관계를 연구한다. 최근에는 집단주의 가치와 독립적 자기의 시너지 모형을 적용하여 집단 효과성, 집단 간 화해와 갈등해소, 집단에서 의(義)와 충(忠)의 발현, 개인과 집단의 공동번영 등의 주제를 연구하고 있다.

권영미는 Washington State University에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관심사로는 집단 규범 및 집단 역동, 집단 간 관계 등이 있다.

박주화는 브라운대학교 인지과학과(Cognitive, Linguistics, and Psychological Sciences)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관심사로는 화

해, 이념갈등, 통일 및 남북관계 등이다.

참고문헌

- 강원택 (2004). 남남갈등의 이념적 특성에 대한 경험적 분석. *남남갈등 진단 및 해소방안* (pp. 55-100). 경상남도: 경남대학교 출판부.
- 김범수, 김병로, 김학재, 김희정, 박원호, 이종민, 최규빈, 임경훈, 최현정 (2021). 2020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김영기 (2018). 남한사회의 남북통일의 필요성 인식의 시계열적 변화와 영향 요인 차이.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8(8), 707-717.
- 김지범, 강정환, 김석호, 김창환, 박원호, 이윤석, 최성수, 최슬기, 김솔이 (2019).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18*.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김학재, 강채연, 김범수, 김병로, 김희정, 이성우, 최규빈, 임경훈, 조용신 (2020). 2019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김혜숙 (2002). 대학생들이 중요시하는 가치와 북한 사람 및 대북 정책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6(1), 35-50.
- 박주화, 강혜석, Steven Sloman, Eran Halperin, Babak Hemmatian, Nimrod Nir (2020). 2020 한국인의 평화의식. 서울: 통일연구원.
- 박주화, 이민규, 최훈석, 권영미, Steven Sloman, Eran Halperin (2019). 2019 한국인의 평화의식. 서울: 통일연구원.
- 윤광일 (2019). 대북 및 통일 정책 선호의 개인 성향과 가치 기반. *국방연구*, 62(4), 25-66.
- 이상신 (2015). 소수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결정요인 연구. *다문화사회연구*, 8(2), 39-67.
- 이진안, 최승혁, 허태균 (2012). 정치적 판단에서 심리적 요인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2), 69-86.
- 이화행, 정성호, 강경수, 최진호, 이정기 (2015). 통일보도, 평가, 사회심리적 변인이 통일 관련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9(1), 62-89.
- 정은미 (2013). 남북한 주민들의 통일 의식 변화: 2011~2013년 설문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 5(2), 74-104.
- 최훈석, 이하연, 권영미, 박주화 (2021). 통일에 대한 태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7(3), 259-284.
- 최훈석, 이하연, 정지인 (2019). 청소년 사회정책성 구조에서 정책성 불확실성과 내집단 동일시, 남북한 화해 태도 및 행동의도 간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3(4), 45-59.
- 홍기원, 이종택 (2010). 한국 성인의 이념적 지형과 심리적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2), 1-25.
- KBS 남북교류협력단 (2021). 2021년 국민 통일의식 조사 결과 (요약). 서울: KBS 공영미디어 연구소.
- Abelson, R. P., Kinder, D. R., Peters, M. D., & Fiske, S. T. (1982). Affective and semantic components in political person percep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 619-630.
<https://doi.org/10.1037/0022-3514.42.4.619>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 179-211.
[doi:10.1016/0749-5978\(91\)90020-T](https://doi.org/10.1016/0749-5978(91)90020-T)
- Ajzen, I., & Fishbein, M. (2005). The influence of attitudes on behavior. In D. Albarracín, B. T. Johnson, & M. P. Zanna (Eds.) *The handbook of attitudes* (pp. 173-221).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Albarracín, D., Johnson, B. T., Zanna, M. P., & Kumkale, G. T. (2005). Attitudes: Introduction and scope. In D. Albarracín, B. T. Johnson, &

- M. P. Zanna (Eds.) *The handbook of attitudes* (pp. 3-19). Psychology Press.
- Altemeyer, B. (1981). *Right-wing authoritarianism*. University of Manitoba Press.
- Altemeyer, B. (1988). *Enemies of freedom*. Jossey-Bass.
- Altemeyer, B. (1998). The other "authoritarian personality." In M. 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30, pp. 47-92). Academic Press.
doi:10.1016/S0065-2601(08)60382-2
- Asbrock, F., Sibley, C. G., & Duckitt, J. (2010). Right-wing authoritarianism and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nd the dimensions of generalized prejudice: A longitudinal test.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24*, 324-340.
doi:10.1002/per.746
- Bar-Tal, D. (2007). Sociopsychological foundations of intractable conflict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0*, 1430-1453. doi:10.1177/0002764207302462
- Bentler, P. M., & Bonnett, D. G. (1980). Significance tests and goodness of fit in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Psychological Bulletin, 88*, 588-606.
doi:10.1037/0033-2909.88.3.588
- Breckler, S. J., & Wiggins, E. C. (1989). Affect versus evaluation in the structure of attitud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5*, 253-271. doi:10.1016/0022-1031(89)90022-X
- Browne, M. W., & Cudeck, R. (1992).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1*, 230-258.
doi:10.1177/0049124192021002005
- Clore, G. L., & Schnall, S. (2005). The influence of affect on attitude. In D. Albarracín, B. T. Johnson, & M. P. Zanna (Eds.) *The handbook of attitudes* (pp. 437-489).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ural sciences* (2nd ed.). Academic Press.
- Cohen, J. (1992). A power primer. *Psychological Bulletin, 112*, 155-159.
doi:10.1037//0033-2909.112.1.155
- Crawford, J. T., & Pilanski, J. M. (2014). The differential effects of right-wing authoritarianism and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on political intolerance. *Political Psychology, 35*, 557-576.
doi:10.1111/pops.12066
- Cumming, G. (2009). Inference by eye: Reading the overlap of independent confidence intervals. *Statistics in Medicine, 28*, 205-220.
doi:10.1002/sim.3471
- Cumming, G., & Finch, S. (2005). Inference by eye: Confidence intervals and how to read pictures of data. *American Psychologist, 60*, 170-180.
doi:10.1037/0003-066X.60.2.170
- Duckitt, J. (2001). A dual-process cognitive-motivational theory of ideology and prejudice. In M. 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33, pp. 41-113). Academic Press.
doi:10.1016/S0065-2601(01)80004-6
- Duckitt, J. (2006). Differential effects of right wing authoritarianism and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on outgroup attitudes and their mediation by threat from and competitiveness to outgroup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2*, 684-696. doi:10.1177/0146167205284282
- Duckitt, J., & Sibley, C. G. (2009). A dual process motivational model of ideological attitudes and system justification. In J. T. Jost, A. C. Kay, & H. Thorisdottir (Eds.) *Social and psychological bases of ideology and system justification* (pp. 292-313). Oxford University Press.
doi:10.1093/acprof:oso/9780195320916.001.0001
- Duckitt, J., & Sibley, C. G. (2010). Personality, ideology, prejudice, and politics: A dual process motivational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78*, 1861-1894.
doi:10.1111/j.1467-6494.2010.00672.x

- Duckitt, J., Wagner, C., Du Plessis, I., & Birum, I. (2002). The psychological bases of ideology and prejudice: Testing a dual process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 75-93. doi:10.1037//0022-3514.83.1.75
- Eagly, A. H., & Chaiken, S. (1998). Attitude structure and function. In D. T. Gilbert, S. T. Fiske, & G. Lind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4th ed., pp. 269-322). McGraw-Hill.
- Ekman, J., & Amnå, E. (2012). Political participation and civic engagement: Towards a new typology. *Human Affairs*, 22, 283-300. doi:10.2478/s13374-012-0024-1
- Fabrigar, L. R., MacDonald, T. K., & Wegener, D. T. (2005). The structure of attitudes. In D. Albarraçín, B. T. Johnson, & M. P. Zanna (Eds.) *The handbook of attitudes* (pp. 79-125).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Fishbein, M., & Aj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Addison-Wesley.
- Ho, A. K., Sidanius, J., Kteily, N., Sheehy-Skeffington, J., Pratto, F., Henkel, K. E., ... & Stewart, A. L. (2015). The nature of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Theorizing and measuring preferences for intergroup inequality using the new SDO₇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9, 1003-1028. doi:10.1037/pspi0000033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1-55. doi:10.1080/10705519909540118
- Jost, J. T., Banaji, M. R., & Nosek, B. A. (2004). A decade of system justification theory: Accumulated evidence of conscious and unconscious bolstering of the status quo. *Political Psychology*, 25, 881-919. doi:10.1111/j.1467-9221.2004.00402.x
- Jost, J. T., Federico, C. M., & Napier, J. L. (2009). Political ideology: Its structure, functions, and elective affiniti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0, 307-337. doi:10.1146/annurev.psych.60.110707.163600
- Jost, J. T., Glaser, J., Kruglanski, A. W., & Sulloway, F. J. (2003). Political conservatism as motivated social cognition. *Psychological Bulletin*, 129, 339-375. doi:10.1037/0033-2909.129.3.339
- Jost, J. T., & Sidanius, J. (2004). *Political psychology*. Psychology Press.
- Jung, J., Hogg, M. A., & Choi, H. S. (2016). Reaching across the DMZ: Identity uncertainty and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Political Psychology*, 37, 341-350. doi:10.1111/pops.12252
- Kenny, D. A. (2020, June 5). *Measuring model fit*. Retrieved from <http://davidakenny.net/cm/fit.htm>
- Krosnick, J. A., & Petty, R. E. (2014). Attitude strength: An overview. In R. E. Petty & J. A. Krosnick (Eds.) *Attitude strength: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pp. 1-24).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Küpper, B., & Zick, A. (2014). Group-focused enmity: Prevalence, correlations and causes of prejudices in Europe. In C. Kinnvall, T. Capelos, & P. Nesbitt-Larking (Eds.) *The Palgrave handbook of global political psychology* (pp. 242-262). Palgrave Macmillan. doi:10.1007/978-1-137-29118-9_14
- Kwon, Y. M., & Park, J. (2019). Peace through cooperation or peace through strength? How to achieve peace in the very intractable conflict society. *Historical Social Research*, 44, 269-292. doi:10.12759/hsr.44.2019.4.269-292
- Merolla, J. L., Sellers, A. H., & Fowler, D. J. (2013). Descriptive representation, political efficacy, and African Americans in the 2008

- presidential election. *Political Psychology*, 34, 863-875. doi:10.1111/j.1467-9221.2012.00934.x
- Podsakoff, P. M., MacKenzie, S. B., Lee, J. Y., & Podsakoff, N. P. (2003). Common method biases in behavioral research: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recommended remedi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8, 879-903. doi:10.1037/0021-9010.88.5.879
- Pratto, F., Sidanius, J., Stallworth, L. M., & Malle, B. F. (1994).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 personality variable predicting social and political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741-763. doi:10.1037/0022-3514.67.4.741
- Rosenberg, M. J., & Hovland, C. I. (1960). Cognitive, affective, and behavioral components of attitudes. In C. I. Hovland & M. J. Rosenberg (Eds.) *Attitude organization and change* (pp. 1-14). Yale University Press.
- Satherley, N., Sibley, C. G., & Osborne, D. (2021). Ideology before party: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nd right-wing authoritarianism temporally precede political party support.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60, 509-523. doi:10.1111/bjso.12414
- Sidanius, J., & Pratto, F. (2001). *Social dominance: An intergroup theory of social hierarchy and oppress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ammel, N., Bockers, E., Neuner, F., Chhim, S., Taing, S., & Knaevelsrud, C. (2017). The readiness to reconcile inventory: Assessing attitudes toward reconciliation in victims of war and conflict.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33, 436-444. doi:10.1027/1015-5759/a000304
- Van Zomeren, M., Kutlaca, M., & Turner-Zwinkels, F. (2018). Integrating who “we” are with what “we” (will not) stand for: A further extension of the social identity model of collective action. In G. Hodson, & R. Turner (Eds.)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vol. 29, pp. 122-160), doi:10.1080/10463283.2018.1479347
- White, K. R., Kinney, D., Danek, R. H., Smith, B., & Harben, C. (2020). The resistance to change-beliefs scale: Validation of a new measure of conservative ideolog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6, 20-35. doi:10.1177/0146167219841624
- Womick, J., Rothmund, T., Azevedo, F., King, L. A., & Jost, J. T. (2019). Group-based dominance and authoritarian aggression predict support for Donald Trump in the 2016 US presidential election.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10, 643-652. doi:10.1177/1948550618778290
- Zhao, K., Faulkner, N., & Perry, R. (2020).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right-wing authoritarianism, and willingness to carry out three domains of socially inclusive behaviors in a public campaign. *Analyses of Social Issues and Public Policy*, 20, 264-286. doi:10.1111/asap.12200

1 차원고접수 : 2021. 11. 02.

수정원고접수 : 2021. 12. 02.

최종게재결정 : 2021. 12. 03.

The Role of Social Beliefs and Attitudes Toward Unification of Korea in Predicting Individuals' Support for Unification Policy

Hayeon Lee¹

Hoon-Seok Choi¹

Young-Mi Kwon¹

Juhwa Park²

¹Sungkyunkwan University

²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among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SDO), Right-Wing Authoritarianism (RWA), and attitudes toward unification of Korea (unification attitudes) in predicting individuals' support for the government's unification policy (policy support). SDO and RWA represent generalized social beliefs that reflect support for the hierarchical social structure and resistance to social change, respectively. From the standpoint that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will necessarily involve a threat to the existing intergroup status hierarchy and changes in the current Korean society, we expected that the two social beliefs would be negatively related to unification attitudes and policy support. To specify the natur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beliefs and unification attitudes in predicting individuals' policy support, we explored path models involving a moderation and a mediation between the predictor variables. Results from a survey involving a stratified sample of Korean adults ($N = 1,500$) revealed that SDO, RWA, and unification attitudes independently predict policy support, with unification attitudes as the strongest predictor. Also, the relationship between unification attitudes and policy support was not moderated by either SDO or RWA. Further, unification attitudes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DO and policy support, suggesting that in the context of the two Koreas, individuals' generalized beliefs about society predict indirectly their political behavior via specific attitudes toward unification. We discuss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our findings and future directions for research.

Key words : Social beliefs,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Right-wing authoritarianism, Attitudes toward Unification of Korea, Policy support